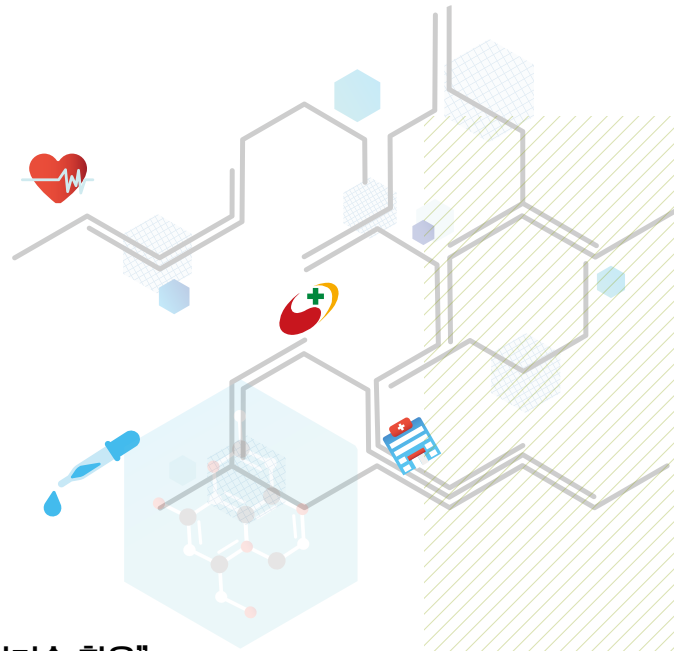


산업보건 주요뉴스



직업인 10명 중 1명 “업무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남성·30대 이하·고학력자·정규직’ 기술 활용도 높아…

8개 기술 중 ‘클라우드’ 가장 많이 활용

우리나라 직업인 10명 중 1명 정도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직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젊은 고학력 정규직 남성’의 기술 활용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대표 직업 재직자 1,012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동화로봇, 가상현실, 3D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8개를 실제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기술을 활용하는 재직자 비율은 평균 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개 기술 가운데 현재 업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20.8%)이며, 활용도가 가장 낮은 것은 드론(1.3%)이었다. 인공지능(16.6%), 빅데이터(14.1%), 사물인터넷(11.9%) 활용률은 10%대였으며, 자동화로봇(4.9%)과 가상현실(2.2%), 3D프린터(2.6%)는 업무 활용도가 5% 미만이었다.

성·연령·학력·계약형태별 핵심 기술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 ‘30대 이하·남성·정규직·대졸 이상’의 활용도가 높게 나온 반면, ‘40대 이상·여성·비정규직·고졸 이하’는 상대적으로 기술 활용도가 낮았다.

직종별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기계 관련직’은 스마트팩토리·로봇의 도입확대로 자동화로봇, 인공지능 활용도가 높고, 특히 조립업무·안전교육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 관련직’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의 활용도가 높았다.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후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인공지능스피커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전기·전자 관련직’은 반도체와 같은 정밀부품을 생산할 때 자동화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과 빅데이터 등 다른 핵심기술도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했다. 고객에게 자산 관리나 투자 조언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금융 및 보험 관련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았다.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 관련직’은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제품 디자인 등을 할 때 3D 프린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리직’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다른 기술에 비해 많이 활용하였는데,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은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을 수행하고, QR 코드 등 증강현실 기술도 업무에 적용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사물인터넷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CCTV(맘캠)를 업무 공간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보건지원단 출범

안전보건공단,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위해 지원 나서

안전보건공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전보건지원단을 지난 24일부터 운영 시작했다.

이번에 구성된 지원단은 공단 안전보건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기간을 포함해 1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되며, 동기간 동안 올림픽 조직위 H&S(안전보건) 팀 및 합동점검단과 함께 시설물 안전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공단은 철저한 현장 안전보건 확보를 통해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올림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